

종합·해설

민선 5기에 바란다

깨끗한 광주·전남 만들어 달라



◇노영대 광주지방번호사회 회장="깨끗하고 질서있는 광주·전남"을 만들어달라. 각종 공사나 인사 등 현안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소외받는 서민 목소리 귀 기울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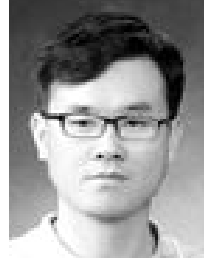
◇장은하 조선대병원 간호사=아픈 사람을 희생과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사처럼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소외받는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장기이식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절실하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시민 참여도 늘 것이다.

어민 수익성 높은 품목 전환 지원을



◇김관국 강진 수산경영인협회장=김값 하락 등으로 어민들의 형편이 크게 나빠진 만큼 유통체계 개선과 판로 모색으로 수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전북 등 수익성 높은 품목으로 전환해 어민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수박람회 특별법 보완해야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여수세계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일이 우선이다. 도로망과 숙박시설 등이 지지부진해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특별법 보완과 민관 공동 '세계박람회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 상시 점검해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행정지원 절실



◇김봉우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친환경 농업정책으로 전남지역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국의 52% 수준까지 늘어났다. 앞으로는 면적확대에서 한발 나아가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 등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全大 앞둔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 성향 보니

주류-비주류 사이 일부의원 '이중행보'

이용섭·강기정 주류, 김영진·주승용 비주류 차기 총선 영향력 저울질 상당수 중도 표방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 결과는 당내 입지는 물론 19대 총선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류-비주류 간의 세력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도를 표방하며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갈자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선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 핵심으로는 강기정, 서갑원, 이용섭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김성곤, 김동철 의원 등도 주류 측

성향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비주류의 핵심으로는 채신연 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김영진, 김재균, 주승용 의원이 꼽히고 있으며 우윤근 의원이 비주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당권 도전에 나서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에 각을 세우며 비주류 진영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현 의원과 당권 도전에 나서는 김효석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에 속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남도당 위원장에 나서는 이낙연 의원과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영택 의원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박상천 의원이 국회부의장 낙마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 성향으로 분석되는 유선호, 최인기, 김영록, 이윤석 의원 등은 표면적으로는 중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류 측에 더 가까운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는 관측이다. 특히, 당권 도전에 나서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에 각을 세우며 비주류 진영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현 의원과 당권 도전에 나서는 김효석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에 속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일부는 이중 행보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차기 전당대회 결과에 당내 입지 및 19대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류 측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할 경우, 비주류 측 핵심 인사들은 당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19대 총선 공천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주류 측이 당권을 장악한다면 주류 측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미래는 상당히 어두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내 입지가 크게 좁아지는 등 정치적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양숙 여사 안희정지사 취임 참석

1일 대전 선화동 충남도청에서 열린 안희정 충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참석한 권양숙 여사가 안 지사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수장 누가 될까

김재무·이호균·홍이식 의원 의장 후보 등록

전남도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도의회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의장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김재무(50·광안 2선거구), 이호균(48·목포 2), 홍이식(52·화순 2) 의원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홍 의원은 3선, 이 의원은 재선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들간 단일화 논의가 후보 등록 마감때까지 단일 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선거일까지 후보간 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9대 의회는 가장 다양한 계층의 의원들로 이뤄진 만큼 포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집행부와는 관계 개

선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거 역대 의장선거에 금품이나 향응 선거를 배제하고 깨끗한 선거로 모범적인 원구성을 하고 싶다"면서 5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그는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62명 의원 중에서 초선 의원이 49명(79%)에 이르는데, 도의회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부응하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광산 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당내에서 순화규계로 분류되며, 이번 인선 과정에서 지역 및 계파 안배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부기획비서관을 거쳐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전략기획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명



민주당은 1일 공식인 전략기획위원장에 호남 출신 재선인 김동철 의원을 임명했다. 당 관계자는 "국정 경험이 있고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 전남 최고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28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광산 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당내에서 순화규계로 분류되며, 이번 인선 과정에서 지역 및 계파 안배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부기획비서관을 거쳐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략공천 남구 7일 최종후보 확정기로

최고위원 의견 엇갈려 선정 늦어질 수도

민주당이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일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광주 남구 등 전략공천 지역 후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이날 주말에도 불일 의견 조율에 나선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 은평 을 등 야권연대 거른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빨리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늘 광주 남구 등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후보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 남구 보궐선거 후보로 장병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가 하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 남구 후보 선정은 광주 민심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일단 오는 7일까지 후보를 선정해야 하겠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은평 을과 함께 막판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들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 남구 보궐선거 후보로 장병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가 하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 남구 후보 선정은 광주 민심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일단 오는 7일까지 후보를 선정해야 하겠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은평 을과 함께 막판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안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4천만원,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월동 준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산구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개별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장 적합
- 마복동 도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령실 뒤편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 매대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학교,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촌동 1744㎡(528평) 매도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남평토지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점, 잡종지 2951㎡(893평)
- 공장, 학교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건물매매

- 수익성 높은 원룸 상가 매매
- 쌍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 1층상가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대가 7억8천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쌍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 대출 4억 8천만원 매대가 12억 5천만원

공장 학교 건물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도가 7억 8천만원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중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실용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담하고 후문 앞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공공 업무용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본사의 외벽방수 전용제품인
반트와 하우징코디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면,

- 특허받은 국내유일의 외벽방수공법이 건물수명을 연장
- 다양한 컬러 마감으로 획기적인 리모델링효과
- 때가 타지 않는 고풍력 코팅으로 재질효과 지속
- 세리믹 특수단열소재로 냉난방비 절감 (울선)

300여개의 다양한 컬러미감
외벽을 아름답게
유연한 곡선이나 실제 벽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불결제거만으로도
외벽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사 (061) 284-0485 순천지사 (061) 726-0482
여수지사 (061) 683-0485 광양지사 (061) 795-0485

(062) 511-0444, 010.6603.0405